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 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량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 울음홀, 사적렬차, 사적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참가자들과 함

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조

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10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도착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조국

해방전쟁참전렬사들을 추모하여 들어총구령을 내리였다.

장중한 애국가주악에 이어 꽃바구니진정목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총참모부, 총정치국, 인민무력부와 군중, 군단급단위 명의로 된 꽃바구니,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참가자들과 함께 인민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시였다.

이어 노래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가 주악되는 속에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수호전에 용약 펼쳐나선 유명무명의 렬사들이 발휘한 영웅적 위훈이 깃들었다고 하시면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휘된 조국수호정신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 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새 세대 청소년들과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 애국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전승절을 맞으며 진행된 4.25팀과 압록강팀간의 남자배구 경기를 보시고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맞으며 진행된 4.25팀과 압록강팀간의 남자배구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두 팀은 조선로동당의 체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꾸준히 련마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이였다.

경기에서는 4.25팀이 압록강팀을 이겼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배구선수들이 수준이 높은 경기를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경기성적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것은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

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인민군장에서 진행된 전승절 경축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관람자들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 그들을 축하하시였다.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7.27행진곡》,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관현악

과 노래편곡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남성합창 《근위부대자랑가》, 남성독창 《그날의 15분》, 관현악 《병사의 발자국》, 남성독창 《군항의 저녁》, 남성2중창과 남성합창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 남성합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녀성독창과 남성합창 《끝나지 않은 생》, 남성합창 《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라》,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승리는 대를 이어》, 남성합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의 종목들이 울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적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임으로써 불패의 군민대단결로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켓발사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또다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켓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날 발사훈련에는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기지타격임무를 맡고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력타격부대가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기지들의 현 배치상태와 그를 타격소멸할수 있게 가상하여 세운 발사계획을 보아주시는 다음 로켓발사훈련을 지도

하시였다.

이날 훈련에서도 화력타격부대의 전투력과 전술로켓의 전투적성능이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최근에 주체적인 로켓과학기술과 사격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발사훈련을 많이 진행한 결과 이제는 전략군이 현대전에서 그 어떤 화력타격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었다고 하시면서 전승절을 맞으며 러친 이번 화력타격훈련의

목적은 전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파도 같다고 하시며 전략군의 거듭되는 훈련성공에 대한축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력사는 결코 고칠수도, 숨길수도, 지어낼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미국놈들이 7.27을 맞으며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패전에서 교훈을 찾는 대신 명분도 푹푹하지 못한 오바마의 《포고문》과 박근혜의 그 무슨 《대통령기념사》로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

키는 해피한 광대놀음까지 벌리고있다고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백악관주인들은 계속 교체되였지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력사적으로 뉘대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였고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축 쳐대기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하

시며 어길수 없는 이 범죄적인 두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최후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시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무리들을 하루빨리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지난 7월 26일, 천지를 진감하는 요란한 폭음속에 로케트가 하늘높이 날아올랐다.

전승절특별축전에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켓발사훈련이었다.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기지타격임무를 맡고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력타격부대가 진행한 발사훈련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승절을 맞으며 더친 이번 화력타격훈련의 폭음은 전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파도 같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7월의 하늘가에 울린 폭음, 그 메아리는 대단히 크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있다.

《군사분계선 가까운 최전방에서 지축을 흔드는 엄청난 폭음이 들리고있다. 그 폭음은 날이 갈수록 군사분계선을 향해 차츰 남하하고있다. 군사분계선 가까운 곳에 전진배치된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의 귀에 폭음이 차츰 가까이 들려오는데도 그들은 짐짓 못듣는척 어물쩍 넘어갔지만 그들의 그런 무반응이야말로 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경에 이르렀는지 말해주는 반증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은 공화국의 불패의 군력과 인민군대의 무적강군의 위력을 다시금 힘있게 보여주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군대가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 군대도 《유일초대국》으로

# 7월의 하늘가에 울린 장쾌한 포성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켓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자처하는 미군을 타격하는 훈련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한 전례는 찾아볼수 없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핵무력강화와 로켓발사 훈련을 그 무슨 《결의위반》이니, 《도발》이니 하고 악랄하

게 걸고들면서 그를 구실로 저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다. 대규모 《올디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리겠다고 광고하고 그 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런 준엄한 정세속에서 단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남조선 강점 미군기지들에 대한 타격훈련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감히 유린하고 통략하려드는자들은 추호도 용서치 않는 천출명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닮은 백두산혁명강군의 면모를 온 세상에 파시한 역사적인 장거였다. 전승절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에서는 만약

미국이 핵항공모함 과 핵타격수단들을 가지고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러한다면 조선인민군은 약의 총본산인 백악관과 미국방성을 향하여, 태평양상에 널려있는 군사기지들과 미국의 대도시들을 향하여 핵탄두로켓들을 발사하

게 될것이라는 멸적의 선언이 울려나왔다. 불의의 횡포에 정의의 힘으로 맞서고 역사적으로 승리만을 이룩해온것은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그날 훈련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백악관 주인들은 계속 교체되었지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역사적으로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처스러운 전통이었고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하시며 어길수 없는 이 법적적인 두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

법칙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이다. 대대로 위대한 천출명장을 모시어 승리만을 이룩하는것이 공화국의 역사와 전통이며 그로 하여 수처와 패배, 멸망의 구렁렁이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은 어쩔수 없는 미국의 운명인것이다.

전승절을 앞두고 7월의 하늘가에 울린 폭음, 그것은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조미대결을 끝장내고 61년전의 승리의 7.27을 미제의 최후명말을 선고할 새 세기 승리의 7.27로 줄기차게 이어갈이 나라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의지와 기상을 시위한 승리자들의 선언이었다.

본사기자 김강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인 1950년 여름 서울에 얼마동안 머무르며 남반부의 해방구사업을 지도하신데 대해 추억하시었다.

그이의 회고는 길지 않다. 그러나 불과 불이 오가는 최전방에서 군사작전지휘만이 아니라 남녘동포들의 생활상안정을 념려하시고 보살피주신 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에 대한 이야기는 7.27전승의 역사적사건과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전선시찰의 길에서 해방된 서울을 찾으신 어느날 수령님께서 들리신 곳은 《경무대》였다. 1920년대에 세워져 력대 일제총독이 들어앉아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악마의 소굴, 해방후에는 미군정장관과 미국적력이 틀고앉아 있는 북마천이었다. 그곳을 찾으시고 스무해세월 화부로 일한 50대의 한 노동자를 만나신 수령님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는가 하시며 가정형편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알아보시었다. 그러시고는 식구가 많아 고생이 클거

라고 하시며 그에게 쌀을 보내주도록 조치하시고 자신의 점심상까지 들려주시는 은정을 베푸시었다. 서울과 수안보 등 최전선에 위치한 전선사령부들 여러차례 찾으시어 대전해방작전과 같은 전술적명안을 가르쳐주시는 긴박하고 바쁘신 속에서도 정부를 비롯한 해방된 지역들에서의 민주개혁실행정형과 함께 인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시장운영문제, 서울시민들의 식량과 화목, 겨울용담보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해주신 수령님이시었다.

어느날 그이께서는 전선으로 가시는 길에 한 농가에 들리시었다. 집안벽면에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앉아온 집주인은 머무도 불시에 그이를 뵈우게 된 꿈같은 현실앞에서 몸둘바를 몰라라다 방안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인사말을 올리시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날도 더운데 여기가 좋다고 하시면서 토방우에 앉으시어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

수령님의 동포애적조치에 의하여 8월의 그 여름날에 공화국남반부지역에 농업현물들을 만나신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백성이라고 하시고는 토지개혁실례도 알아보시고 분어받은 땅을 잘 다루고 농사지을 방법도 가르쳐주시며 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피주시었다. 백성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어울려 대화를 하시는 수령님의 모습은 한없이 인자하고 겸허하신 성품을 지니신 인민적정수의 출중한 모습으로 남녘인민들에게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기시었다. 서울 청계천가의 빈민촌을 돌아보시며 시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고 조민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한강을 건느시면서 그들의 과거사와 마을형편에 대해서도 자초지종 다 알아보시며 명령된 그들의 생활처지를 념려하신 수령님이시었다.

남조선인민들을 위한 걱정과 걱정거리가 되었던 남녘동포들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화의 나날에 실생활을 통해 수령님의 위인상과 그이의 보살핌이 있었다는것을 50년 여름날의 이야기가 다시금 전해주고 있다. 그 자리에서 박영민동포는 자기들의 공로를 크게 여기시고 높이 평가하시는 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었다. 그의 진정을 고맙게 받으

시며 박영민동무는 나의 동지이며 전우이며 친우라고 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이어 특별히 그의 건강에 관심을 돌리시었다. 자신의 체중이 얼마이며 심장부담이 크다는 박영민동포의 말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지금 여든세살인데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념려하시었다. 그날 조선인로병동에게 한동금이사형의 군사칭호를 수여하시고 생 군복을 입은 그들과 기념사진도 찍으시였으며 군인이 아니었던 박영민동포에게는 양복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옷가지들을 배려하신 수령님께서서는 거동이 불편해하는 그의 신상을 헤아리시어 몸조리를 잘 하도록 원심을 기울이시시시었다. 이윽하여 실내자전거로 15분 활동 운동하면 하루 30리 활동보장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운동기구의 용도와 리용방법

오성산. 이 말에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 사생결단의 전선길을 걸으신 위대한 명장에 대한 고귀한 추억이 실려있다. 지난 세기 90년대말 공화국이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던 준엄한 나날 온 겨레와 세계가 지켜본 장군님의 모습은 야전복을 입고 오성산으로 오르는 모습이였다. 오성산이란 말만 들어도 감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선군정치를 계속하는 한 우리 인민은 자주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될것이라고 하신 장군님이시었다. 주체87(1998)년 8월 어느

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성산을 찾으신 그날은 새벽부터 출몰 비가 내려 풀밭이 미끄러져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장군님께서 차에서 내려 차바퀴에 어깨를 들이치시었고 안간힘을 쓰며 공회전하는 야전차바퀴

오성산은 길이 전한다. 마지막 몇굽이를 앞에 두고 종시 멋어서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고지에 전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최고사령관이 오늘과 같은 이런 곳은 전선의 경계를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고지정점을 향하여 다시

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성산을 찾으신 그날은 새벽부터 출몰 비가 내려 풀밭이 미끄러져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장군님께서 차에서 내려 차바퀴에 어깨를 들이치시었고 안간힘을 쓰며 공회전하는 야전차바퀴

오성산은 길이 전한다. 마지막 몇굽이를 앞에 두고 종시 멋어서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고지에 전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최고사령관이 오늘과 같은 이런 곳은 전선의 경계를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고지정점을 향하여 다시

오성산은 길이 전한다. 마지막 몇굽이를 앞에 두고 종시 멋어서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고지에 전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최고사령관이 오늘과 같은 이런 곳은 전선의 경계를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고지정점을 향하여 다시

오성산은 길이 전한다. 마지막 몇굽이를 앞에 두고 종시 멋어서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고지에 전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최고사령관이 오늘과 같은 이런 곳은 전선의 경계를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고지정점을 향하여 다시

오성산은 길이 전한다. 마지막 몇굽이를 앞에 두고 종시 멋어서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고지에 전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최고사령관이 오늘과 같은 이런 곳은 전선의 경계를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고지정점을 향하여 다시

오성산은 길이 전한다. 마지막 몇굽이를 앞에 두고 종시 멋어서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고지에 전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최고사령관이 오늘과 같은 이런 곳은 전선의 경계를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고지정점을 향하여 다시

오성산은 길이 전한다. 마지막 몇굽이를 앞에 두고 종시 멋어서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고지에 전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최고사령관이 오늘과 같은 이런 곳은 전선의 경계를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고지정점을 향하여 다시

오성산은 길이 전한다. 마지막 몇굽이를 앞에 두고 종시 멋어서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고지에 전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최고사령관이 오늘과 같은 이런 곳은 전선의 경계를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고지정점을 향하여 다시

오성산은 길이 전한다. 마지막 몇굽이를 앞에 두고 종시 멋어서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고지에 전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최고사령관이 오늘과 같은 이런 곳은 전선의 경계를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고지정점을 향하여 다시

오성산은 길이 전한다. 마지막 몇굽이를 앞에 두고 종시 멋어서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고지에 전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최고사령관이 오늘과 같은 이런 곳은 전선의 경계를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고지정점을 향하여 다시

오성산은 길이 전한다. 마지막 몇굽이를 앞에 두고 종시 멋어서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고지에 전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최고사령관이 오늘과 같은 이런 곳은 전선의 경계를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고지정점을 향하여 다시

오성산은 길이 전한다. 마지막 몇굽이를 앞에 두고 종시 멋어서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고지에 전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최고사령관이 오늘과 같은 이런 곳은 전선의 경계를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고지정점을 향하여 다시

## 잊을수 없는 50년여름

## 조선의 승리의 환호성은 세기를 이어 더욱 높이 울릴 것이다

### 국제사회계의 반향

국제사회계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안아오신 전승의 력사, 반미대결전의 승리의 력사가 선군조선의 태양이시고 모든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세기를 이어 꽃이 이어지리라 고 굳게 믿고있고있다.

조선통일지지 구비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이 이룩한 승리는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림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세계에 보여준 력사적인 사변이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3년간의 가철치절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애국적헌신성과 영웅주의로 미제를 타승하였다. 미제는 력사상 처음으로 패하였다고 말하였다.

영국조선진선협회는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미제는 내리막길에, 세기반제민주해방운동은 양양기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선전쟁은 비록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떨쳐나 용감히 싸운

다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성명하였다.

로씨야신문 《올리지보스도크》는 조선은 미제와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펼쳐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미대결전의 력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의 력사이다. 60년전 조선의 승리의 환호성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더욱 높이 울리고있다.

유감스러운것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공화국에 대한 침략책동에 미쳐달뼉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조선의 력사에 새로운 승리의 한페이지를 또다시 기록하게 할것이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싸움에서 승리한 첫인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밑에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은 패배를 모른다고 호

언장담하던 미제를 타승하였다고 성명하였다.

오늘 조선은 그 어떤 원수도 감히 범접 못하는 핵보유국으로,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었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을 높이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또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것이다.

부루 김일성-김정일주요인 구조소 위원장은 7월 27일은 세계반제자주력량이 조선인민과 함께 경축해야 할 위대한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1950년대의 쓰디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도수를 높이고있지만 백두산절세위인의 선군령도밑에 전진하는 조선을 절대로 당하지 못할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고 그이께서 펼쳐시는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은 난공불락의 사회주의보루로 더욱 강화될것이며 미제와의 싸움에서 제2, 제3의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나이지리아신문 《나이지리언 오브저버》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패배의 교훈을 잊고 전조선에 대한 지배를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조선반도를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의 하나로 만들어왔다.

미국이 끊임없이 일으킨 정치군사적도발로 하여 이 지역의 정세는 늘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은 례없이 미국의 패배를 다시 말하여 조선인민의 승리로 막을 내리곤 하였다.

만약 미국이 새 전쟁을 강요한다면 이번에는 항복서에 도장찍을 놈도 남지 않게 모조리 소탕해버리겠다는 것이 조선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조선은 빈말을 모르는 나라이다. 60여년전 미국에 처음으로 되는 참패를 안긴 조선은 새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국으로서의 미국의 력사적종말을 가져올것이다.

본사기자



선군의 산악 오성산의 칼바람길

본사기자

전방지휘소에 오르셨을 때 병사들이 이렇게 험한 길을 걸으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일없다고, 어떻게 좋은 길로만 다니겠는가, 험한 길도 다녀보아야 한다고 흔쾌히 말씀하시었다.

그날에 오성산의 백선두 굽이를 앞장에서 오르신 것처럼 장군님께서도 오성산의 한평생이 나라의 높은 령, 험한 길을 앞장

에서 겪고걸으시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오신 선군길은 눈물없는 들을수 없는 현신과 로고의 대장정이였다.

오성산은 지금도 위대한 선군령정의 숭엄한 모습을 전하며 선군의 산악으로 우뚝 솟아있다.

본사기자 리경철



# 공화국의 전승력사는 영원할 것이다

(전호에서 계속)

## 전승의 력사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나는 사실 복에 절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간 사람이 아니었다. 알고싶은것을 끝까지 알아야 하고 묻고싶은것은 끝까지 물어야 했다. 그래서 공화국의 전승의 결성적이라고 하는 일심단결, 민중의 정신력발현에 대한 서방세계의 《주장》을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로 했다.

평양교외호텔에서 한 청년에게 제기한 질문: 《공화국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체라고 하는데 북민중은 평도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서방세계에서는 북의 체제를 부정하고있다.》

대답: 《서방에서 온갖 험담을 하고 있는줄 알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평도자와 인민의 관계는 북쪽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라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한생애 마음쓰는것이 양육과 친애, 교육이며 출가후 집을 마련하여주는것인데 이것을 국가가 다 해주고있지 않는다. 자식이 어머니를 타아소, 유치원을 거쳐 12년동안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 대학까지도 마찬가지다. 병이면 치료도 무상이다. 가정을 이루면 집도 무상으로 준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실현시켜 주신분이 다름아닌 우리의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시고 변함없이 빛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아버지이시라고 부른다. 다른 나라에도 평도자가 있지만 이렇게 정책을 세우고 실현시켜주는 사람이 있는가. 선생이 한번 대답해보라.》

물음: 《김정은 국방위원회의 제1위원장님은 아직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공화국주민들은 그분을 만나면 열광한다. 왜 그런가?》

대답: 《우리의 원수님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과 사상도 평도도 품모도 똑 같은분이다. 조국과 인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너무나 도와주시다. TV를 보면 잘 알게 될것이다.》

물음: 《공화국의 실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미국에서부터 27시간을 비행기타고, 차타고 왔다. 그래서 나는 TV에 흥미가 없다.》

대답: 《알만 하다. 선생은 그것을 모두 선전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한가지만 말하겠다. 우리의 원수님께서 최전연의 어느 한 구분대를 찾으시어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병사들을 부르시어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다. 집체사진이 아니라 수습병의 매 병사들을 모두 곁에 세우시고 단독사진을 찍어주시었다. 거기에 걸린 시간은 무려 1시간정도였다. 일국의 최고사령관이 평범한 전사들과 그렇게 혈연적관계를 맺고 친부모처럼 사랑을 부여준데

가 세계군력사에 언제 있었는가. 과도사나 섬초소에 작은 목선을 타고가기도 하고 허리치는 목숨을 뛰어넘어 만세를 부르는 병사들을 보며 눈물을 적시기도 하는분이 우리의 원수님이다. 그러나 우리가 왜 원수님을 따르지 않았는가.》

나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자료를 매우 관심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료들과 편린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젊으셨지만 매우 로련하고 세련된 평도자이다. 그분은 최첨단과학기술적정도와 선군정치를 선호하는 한편, 외교, 건축, 환경, 예술 등 모든 분야에 막힘이 없는 실력을 과시하며 과학정보를 이어가계신다.

그분의 군대와 민중에 대한 애정과 친화력은 특별히 뛰어나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고있으며 서방세계를 자주 충격에 빠뜨리곤 한다.

여기서 민중의 정신력을 최우선시하는 그분의 평도방식에서 주목되는 하나의 세부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적으려고 한다.

## 재미교포차령목

나는 얼마전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한 그분의 연설문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를 접하게 되었다.

그분께서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혁명평도의 전기간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만사를 해결하여오셨다고 하시면서 오늘날도 변함없이 사상의 힘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것을 호소하시었다.

그분의 연설문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것은 정치내용에 군사술어를 접목시킨 독특한 문장구사였다.

예를 들면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 《당선전부문과 당조직부문이 배합작전》, 《군민협동작전》, 《대중적혁신운동의 힘있는 척후병》, 《테레적인 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끌어올리는 공격전》, 《사상의 미사일》, 《우리 당의 사상진지는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 《사상일군들! 잘 준비되어있어도 강력한 정예군단들을 편성할수 있다.》 등이다.

우의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분이 반미대결전을 주도하시는 현시대의 뛰어난 정치군사기임을 알수 있다. 목적설현으로 민중을 동원하는 전투적인 용변력, 민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목표를 단숨에 점령케 하는 그 열렬한 호소성은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방지구에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맹호같은 지휘관의 돌격구령소리를 방불케 한다.

연설문의 자자구구에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당당하게 맞선 용장의 기상과 단력, 배짱과 신념이 비껴있고 의도하시는 모든것을 현실에 가장 빈틈없이 가장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과 묘술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즉시 직관화하여 현시시켜주는 특별한 매력이었다.

위인의 신념과 의지가 집약적으로 비껴있는 연설문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양양된 북군민의 정신력을 기반으로

## 글을 마치면서

지난해 나의 북조선방문은 매우 시기적절했기였다.

서방세계에서 북에 대한 악선전이 끊기지 않고있는 때에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한 북의 실상은 그것과 다르기때문이다.

북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으면 돈 없어도 웃고 행복하다.

우리오리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만난 학생들의 재롱스러운 눈빛과 해맑은 웃음소리, 어른들을 초월하는

정의의 위업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분의 평도방범에 감복하게 된다.

동시에 그분이 엮는 영원한 전승으로 향한 이 위대한 집단의 흐름을 멈춰세울수 없음을 확신한다.

하기에 북을 적대시해온 미국의 군사전략연구소의 연구원도 《북의 최고사령관은 미국이나 서방이 예측했던것보다 훨씬 로련하고 강력하며 전략적으로 매우 능숙하다.》고 평가하였다.

세상이 아직은 다 모르는 주체의 사상론이라는 위력한 무기를 높이 추켜들고 천만군민을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결집시켜 만사를 해치며 영원한 전승을 위한 강성국가건설투쟁을 평도하시는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행보는 세계인의 비상한 주목을 끌며 이제 수많은 전설들을 만들어낼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풀어주는 사랑이 없어 운명을 지켜 못준 마누라생각이 문득 떠올라 사신생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서있고 했다.

조선식민들로 웅장하게 서있는 인민대학습당을 돌아보며 북의 우월한 교육제도에 감복했고 고향집에 온것만 같아 읊조리며 둘러 눈을 감고 조용히 노래 《고향의 봄》도 불렀다.

오즘 자료를 보니 내가 북조선을 다녀온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만도 북의 가는 곳마다에는 세계적인 마시링스키장이며 문수물놀이장, 은하과학자거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백성들을 위한 문화휴식봉사지들이 수없이 일떠서다고 한다.

말그대로 조선속도이다.

조선속도에는 민중의 행복과 념원실현을 위한 잠재울것은 북의 열렬한 갈망과 신심과 락관이 함축되어있다.

조선속도에는 민중의 행복과 념원실현을 위한 잠재울것은 북의 열렬한 갈망과 신심과 락관이 함축되어있다.

국가가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처음 보는 이러한 사랑은 미국땅에서 제멋대로의 사고를 가진 나를 정돈시키고 감동시키기에 너무나 충분하다.

이민위원을 정치리념으로 표방하는 북의 인덕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선군정치로 승화되어 불타는 국력을 떨치는 위대한 전승절충사를 성사시켰고 매일에 대한 승리를 확신시켰다.

그렇다. 서방세계에 만연된 북에 대한 부정에 대한 나의 부정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장 아름답게 단장된 곳이 바로 북이라는것이다.

북은 산천도 아름답지만 그것을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의 정신도 아름답다. 그들이 간직한 매일에 대한 희망과 신념은 더욱 아름답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전대미문의 제재, 압박속에서 반드시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오히려 더 굳게 뭉쳐 더 용감하게 나아가는것은 바로 이 아름다움이 있기때문이다.

아름다운것은 언제나 강하고 강한것은 기필코 승리하는 법이다.

북에 대한 미국의 리성은 정전 60여년이 된 오늘까지 진화되지 않았지만 북의 현실앞에 선 미국공민은 그 아름다움에 동화되기 시작하였다.

아름다움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벌써 인간이 아니다.

누구든 력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북에 대한 조작된 편파보도를 만들어내지 말고 부질없는 도발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게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것이 정녕 돈인가? 물질인가?

확언하건대 그것은 사랑과 화복으로 충만되고 자기의 존엄을 지켜 백절불굴하는 북만이 지닌 아름다운 정신력일것이다.

그것이 있어 북의 전승력사는 영원할것임을 나는 당당히 선언할수 있다.

(끝)



오는 4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절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7돛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 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이 책에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합체계화하시고 수령님의 유산대로 민족의 불멸을 갈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이고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었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만대에 길이 빛나게 되었고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 마련되었다.

##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대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부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었고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었다.

해방후 온 민족이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한 구호도 제시하시고 온 겨레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일위업실현에 투색되는 기여를 하도록 이끌어주시어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평도에서 해 민족애에 최를 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재생의 희열을 안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헌신할수 있었으며 각계각층 동포들이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곁잡히 떨쳐나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었다.

정령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겨레에게 남긴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새 시대, 6.15자주통일시대를 펼쳐주시어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빛나는 조국통일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수리로 높이 모시어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리일으키고계신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오신 불문불류의 선군평도의 나

날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념원하시던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애족의 실록이 엮여지는 뜻깊은 날이였다.

주체101(2012)년 3월초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엄한 정경을 안으시고 아버지수령님의 친필비문에 이속도록 서계시었다. 친필비의 글발을 한글자, 한글자 주의깊게 바라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구불멸업적을 추억깊이 회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서 새차게 끓고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나선다고 해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통일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 겨레에게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절의 의지, 불멸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만드시려는 확고한 결심이었다.

이런 절의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래업적은 우리 겨레에게 남긴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신 위대한

조인이 아니라 함복에서 도장을 찍게 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시실 굳은 의지를 천명하시었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돛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의 뜻깊은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필을 남기신 20돛이 되는 올해에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통일부문에 나서서 조국통일을 밝혀주시었다.

백두산절세위원님께서 한평생 걸으셨던 선군길을 이어가시며 내외 호전세력들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겨레의 가슴마에 조국통일에 대한 굳은 확신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사상도 평도도 덕망도 품모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이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겨레는 백두산절세위원들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유훈을 받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 로작에서 밝혀주신 자주통일의 길을 따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 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절저히 관철하자》는 조국통일운동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로작에 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사상과 평도업적의 집대성되어있으며 조국통일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이 제시되어있다.

로작이 발표된 후 지난 17년간 우리 민족은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강령적로작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 해주신 6.15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

념아래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합쳐 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사적사변들을 이룩하였다.

분렬과 대결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의 철조망을 들이내고 북남사이에 철도와 도로가 련결되었고 활짝 열린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통해 수천수만의 각계층 인민들이 북과 남으로 오가며 민족의 통일열기를 고조시켰다.

평양과 서울, 백두산과 금강산, 부산과 대구 등 삼천리방방곡곡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성대히 열려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를 고조시켰으며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련대연합이 강화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촉진되었다.

## 조국통일 3대현장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지금으로부터 17년전인 주체86(1997)년 8월 4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절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었다.

이날에 즈음하여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현칙과 남조선부수권선세력은 《울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분분별한 북침전쟁연습소동과 동족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

조국통일3대현장은 6.15통일시대를 통하여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파시된 조국통일의 불멸의 기치이다.

오늘 미국과 그에 추종한 남조선부수권선세력은 《울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분분별한 북침전쟁연습소동과 동족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

오늘 북남관계는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군부호전장광들을 비롯한 분렬주의세력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여있다.

그러나 안팎의 반동일세력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령적로작에서 밝혀주신 자주통일의 길을 따라 우리 세계에 나가서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 조선사회민주당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이 로작의 구절구절을 심장마에 간직하고 로작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경철

파 애로가 겹쌓여있어도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이 있고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겨레의 자주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우리 천도교인들은 겨레와 동귀일체하여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동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조국통일3대현장을 기어이 관철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 겨레의 소망인 민족의 통일승망을 기어이 앞당겨 실현하였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책임부원 최석현



《우리는 당신측 첫째 요구에 대하여 (에스)라고 대답합니다. 둘째 요구에 대하여서도 (에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도 (에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1953년 7월 19일 정전담판 58차본회의에서 조선인민군측 대표가 발표한 10개 조항으로 된 성명에 대한 미국측 대표의 대답이다. 당시 정전담판장에서 이 사실을 직접 취재하던 외국의 기자들은 미국의 침착하고 가련한 물결을 《유엔군측의 무조건항복!》이라는 제목으로 온 세상에 보도하였다.

력사는 고칠수도, 숨길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법이다. 우의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은 지난세기 50년대에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다가 결국 제가 지른 불에 제가 타죽는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야말았다.

최소한 공화국이 110여차례의 해외침략전쟁에서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는 미국과 맞서싸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것은 말그대로 역사의 기적이었다.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자기 나라 특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 함대의 대부분과 15개 추종국가군대, 남조선군을 포함하여 200여만의 대병력을 내몰았다. 미국은 조선전쟁기간 7 300여만의 군수물자와 1 650억US\$의 군사비를 낭진하였다. 하지만 이 천문학적인

# 어길 수 없는 법칙적인 두 전통

수의 자금과 물자도 캐베로 줄달음치는 미국의 운명을 구원해주지 못하였다.

공화국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 부정할수도 가리울수도 없는 이력사의 법칙은 전쟁이 끝난 후 60여년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변함없다.

침착한 조미대결의 력사에 기록된 몇가지 사실을 돌이켜보자. 1968년 1월 공화국의 력해에 불법침입하였던 미제부장관첩선 《푸에블로》호가 조선인민군해군에 의하여 나포되었을 때였다. 사건발생후 미국은 《푸에블로》호와 그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보복조치》로 공화국의 항구를 《포격》하고 《봉쇄》하였다. 《엔리프라이즈》호와 《요코하마》호, 《레인저》호를 비롯한 20여척의 대기함선집단을 조선동해에 내몰았으며 일본에 있던 2개의 비행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그리고 본국에서 1만 4 600명의 예비역공군과 해군항공대, 지원부대의 소집을 명령하고 해군에비대의 퇴역을 중지시켰으며 남조선장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군, 일본 《자

위대》에는 《비상동원령》을 내려 력해 하였다.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어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던 그 시각 공화국에서는 미제국주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하겠다는 폭탄같은 선언이 발표되고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만단의 정치군사적준비를 갖추었다. 조선인민의 기계세대에 겁을 먹은 미국은 결국 저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미국정병의로 된 물건에서 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음해 4월에 있는 《EC-121》 대형간첩비행기격추사건때에도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과 남조선군 전체 부대에 《비상경계령》을 내린다. 미제7함대소속 항공모함들과 함선들로 《기동함대》를 편성하여 조선동해에 들이던 아첨다 하면서 분주량을 퍼붓지만 조선인민의 불굴의 의지와 단결된 힘에다 겁을 먹고 슬그머니 쫓겨나 버리고말았다.

1976년 8월 미국이 관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 감행한 관문점사건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서 발생한 문제였다.

미제는 정전후 남조선에 대한 핵무기배치를 정책화하고 1958년부터 1990년초까지 무려 1 720여개 나 되는 각종 전술핵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배치된 핵무기는 1990년에 나토지역의 4배, 그 폭발력에서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1 000배이상에 달하였으며 남조선은 100km당 1개이상의 핵무기까지 전개된 세계 제1위의 핵기지로 전변되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미제날뛰는 미국의 발악적 행동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련이어 핵무기전과방지구약에서 발표한다는 단호한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세계를 진감시킨 이 《폭탄선언》에 강타를 받은 미국은 《톱스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을 기일을 앞당겨 중지한다는것을 공포하였으며 미국의 사측을 받는 국제원자력기구는 강도적인 《특별사찰》소동을 포기하지 않음을 하였다.

미국은 조미회담에서 공화국을 압박하고 회담장밖에서는 북침전면전쟁을 가상한 컴퓨터도 시시도 벌리는 등 별의별 책동

을 다하였지만 외교에서도, 군사적대결에서도 참패를 당하여 조미기본합의문에 서명하고 미국대통령의 명의로 된 담보서한까지 공화국에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미해대결전의 빛나는 승리, 이는 련전련승만을 떨쳐온 공화국의 불변의 지위와 미국의 가련하고 불쌍한 신세를 온 세계앞에 보여준 미증유의 사면이었다. 이를 두고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미국이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여 아이미군부가 정권을 내놓게 만들었고 이라크에는 군사적압력을 가하여 씨담 후세인 이 쿠웨이트국에서 무력을 철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지만 북조선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자 클린턴은 손을 들고 항복하였다.》라고 썼다. 영국신문 《에이슈 타임스》지도 《근 반세기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고립, 질식, 파괴해보려고 집요하게 시도하던 미국은 마침내 자기의 목적이 실패하였다는것을 인정하였다.》라고 평하였다.

그후 미국에서 공화당정부가 출현한 후 2002년부터 새로운 조미

해대결전이 시작되었다. 미국대통령 부위가 앉아서서 《년도교서》에서 공화국을 《악의 축》이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저들의 중요제품의무마지 일방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발악도 제자의 운명을 바꾸어놓을수 없었다.

오늘 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세계만방에 그 이름을 빛내고 있으며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만을 떨치고있다.

며칠전 전승절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켓발사훈련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61년전 승리의 7.27을 미제의 최후멸망을 선고할것 세기 승리의 7.27로 만들려는것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력사적으로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결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이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된배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국의 수치스러운 전통이었다.

어길수 없는 이 법칙적인 두 전통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것이고 조미대결전의 최후승리는 조선의것이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 한민구는 함부로 입부리를 놀려대지 말아야 한다

### 싸움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다

한민구가 국방부 장관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대감감투를 쓰더니 놀아내는 꼴이 역겹기 그지없다.

허는 짧아도 침은 길게 뱉는다더니 여기저기 돌아치며 대결광기를 부리다 못해 나중에는 가스통계도 우리 공화국에 대해 《체제생존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뉘우치니 이 얼마나 잠꼬대같은 나발일인가.

뉘우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싸움은 입으로 하려는지 취입된지 알 바 되지도 않았는데 세치도 안되는 허바닥을 무던히나 뿌리째 굴러가며 제정거리고있다. 선임자였던 김관진이 미친개처럼 왕왕 쾅어대며 대결책동에 광분하다가 얻은것이란 여기저기서 만신창이 되도록 못매질만 당한것뿐이다. 그걸 보고도 저 모양새니 한민구 역시 약이 없는 추모이다.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것들은 력대로 약자의 공색한 처지를 중용이질로 보충하며 허세를 부리는것이 체질화된 유전

인것 같다.

하키야 명색만 근대일뿐이지 내속은 토비무리나 다름없으니 왜 그렇게 앉았는가. 구라와 폭행은 물론 성폭행까지 만연하고 최전선부대들에서까지 총기탄사건과 자살사고가 란무하는데다가 상충부라는것들은 돈벌이에 눈이 벌개 돌아치다 못해 근대 《비밀》까지 팔아먹고있는판이다. 이런 오합지졸의 무리로는 군사강국으로 존엄높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을 당하지 못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로서 한민구도 잘 아는 속사정이다.

게는 낡는죽죽 짓는다고 국방부 장관말바가지지를 썼으니 힘은 약한데 체면은 세워야지 그래서 애비 밀고 큰소리치는 철부지처럼 미국상헌을 하내비로 믿고 소리쳐부는게 이런 개년무리들이다.

그러나 한민구에게 현현대장부담케 한마디 한다. 싸움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다.

조선인민군관 오길남

### 연평도의 악몽을 잊지 말라

어제그제 피뢰극방부 장관병거지를 쓴 한민구가 하늘무서운줄 모르

고 마구 헤엄치는 꼴을 보느라니 쓴 웃음을 금할수 없다.

### 평화통일념원에 맞는 조치를 취할것을 주장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 위원회 민족지역위원회가 7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력에 맞게 처신할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은 북이 남조선의 인 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보내기로 한것은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밝혔다.

남조선 《정부》가 북의 제안과 의사를 대결과 결심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경지에 서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제17차 아시아경기 대회는 북남사이의 화합과 관계를 보여줄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 남조선 《정부》가 온 민족의 평화통일념원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책동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일본과의 군사적협력에 나서고있는 남조선당국을 규탄하여 7월 23일 외교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남조선이 일본과의 군사적협력을 위한 외교회담을 벌려놓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의 고노담화부정에 당국이 옹호로 대처하지 못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당국이 군사협정을 량해각서형식으로 체결하여 일본의 《집단지자위권》 행사를 위

반침해주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민족의 안전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전쟁연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쌀시장개방책동을 단죄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농민회총연맹소속 충청남북도지역 농민들이 7월 25일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앞에서 당국의 쌀시장개방책동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쌀시장 개방을 결정했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쌀시장개방정책을 당장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농민들은 쌀시장개방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참가자들은 농민측산 식품부에 항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청사에서의 집회를 시도하였다.

경찰이 이들을 가로막으며 탄압을 가하던 끝에 7명을 련행해가는 폭거를 감행했다.

본사기자

대담

## 평화지향에 역행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

내외호전세력들이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는것과 관련하여 본사기자는 남조선정세 전문가 량세철과 대담을 가졌다.

기자: 최근 남조선의 군부세력이 공화국의 거듭되는 평화제안과 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함께 오는 8월부터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 그런가하면 미국과 함께 고고도요격미사일 《THAAD》(싸드)를 남조선주둔 미군기지에 배치하려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량세철: 알려진것처럼 공화국은 국방위원회 특별제안(6월 30일)과 정부성명(7월 7일)을 통하여 긴장된 조선반도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평정대한 제안들을 발표하였다. 남조선의 인 천에서 열리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문제도 반동일세력의 악랄한 파란책동으로 실무회담이 파탄되었지만 최대한의 내실을 가지고 그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고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광범한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군부세력이 미국과 함께 8월 중순부터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할 기도를 드러내놓고있는것과 함께 남조선주둔 미군에

짜드배치를 현실화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된 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지역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기자: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미국과 함께 강행하려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남조선당국이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량세철: 대단히 엄중하다고 본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년례적》이나, 《방어적》이나 하며 버리려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공화국을 타격목표로 하여 강제되는것으로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가는 매우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해마다 방대한 침략무력과 함께 민간들 그리고 핵타격수단들이 동원된 가운데 진행된 《울지 프리덤 가디언》연습이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핵전쟁위험을 증대시켰다는것은 삼척증자도 아닌 사실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인민들이 침략전쟁연습의 종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년례행사처럼 매해 벌리고있으며 올해에도 거기로 강행하려 하고있다. 더욱이 올해 훈련에서 남조선군부는 《맞춤

형역전력》의 세부내용을 발전, 구체화하고 검증할것이라고 내놓고 떠돌고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그도 그렇듯이 남조선군부 호전세력들이 미국과 함께 짜놓은 《맞춤형역전력》이 한마디로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기정사실화한것이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맞춤형역전력》은 공화국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하여 《위협》, 《사용》, 《사용》 등 3단계로 설정해놓고 매 단계에 맞추어 그시그시 적중하게 대응한다는것인데 1단계 《위협》에서는 국제사회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공화국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고 2단계 《사용》에서는 그 무슨 《징후》가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선제타격》하며 3단계 《사용》에서는 날아오는 북의 미사일들을 저들의 그 무슨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겠다는것이다.

문제는 호전세력들이 제마음대로 단계를 설정하고 공화국에 선제타격을 할수 있다는데 있다. 지난 이라크전쟁때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제거》의 미명하에 선제 공격을 가하였다. 그런데 전쟁후 미국이 이라크를 이점무 살상기 뒤쫓듯이 대량살상무기는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떠

는 《대량살상무기제거》가 한것 침략의 구실로 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군부세력과 미국은 이러한 수법을 《맞춤형역전력》에 써먹고있다. 마치도 공화국의 그 무슨 《위협》과 《도발》을 역제한다는 미명하에 북침선제타격의 구실을 얻자는것이 호전세력들이 노리는 목적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남조선군부와 미국이 이번에 강행하려 하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공화국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 실정해놓고 매 단계에 맞추어 우리를 반대하는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더욱이 이번 훈련에서 핵선제타격계획인 《맞춤형역전력》을 공식 실시하겠다고 떠들어대면서 북침핵전쟁을 거어이 도발할 기도를 드러내었다.

기자: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모한 도발소동에 공화국이 팔방만 기고있을수 없는가.

량세철: 옳다. 공화국은 이미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침략전쟁소동의 위협성과 그것이 조선반도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경고하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내외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의 인내성을 나약성으로 자의대로 해석하고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북남관계가 수습할수 없을

정도의 위기에 처하고 정세가 최악으로 치달아오르리라라는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이번 연습에 참가하는 모든 전쟁장비들을 비롯한 침략무력과 군사대상물들은 핵탄두를 장비한 공화국의 전략 및 전술로켓들의 타격목표물로 될것이다. 공화국은 침략세력들의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은 미사일로, 북침전쟁연습의 《년례화》, 《정례화》에는 정제의 조국통일대전을 위한 군사훈련의 년례화, 정례화대대담해나설것이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철과 철, 불과 불이 맞부딪치게 되면 그 불꽃은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조선반도주변 지역과 태평양연안의 모든 미군군사기체들에 당기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직 못한 한발 떨어진적이 없다고 하는 미국본토도 무사치 못할것이다. 그때 가서 호전세력들은 아마 후회할 놈도 없게 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우리의 평화에오해를 오만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도발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거어이 강행하여 한치의 불꽃이라도 우리에게 튀게 되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파괴적후과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될것이다.

기자: 좋은 이야기 들려주어 감사하다.

## 《보안관찰법》이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것이다

### 남조선단체들 주장

남조선 전라북도의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28일 전주에서 한상렬목사의 《보안관찰법》 불복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0년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다녀간 한상렬목사를 리명박역적배방에 걸어 철창속에 가두는 횡포를 서슴지 않았다.

그뒤를 이어 이번에는 현 당국이 지난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목사에게 《보안관찰법》을 적용하여 그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며 여전히 히 폭압의 울가미를 조이고 있다.

이에 항의하여 목사가 공안당국에 자기의 움직임에 대해 알리라는것을 거부하자 경찰은 여러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위협을 가하고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한상렬목사가 출소이후부터 현재까지 《보안관찰법》이 명시되어있는 신고의무의 리명을 거부하고있는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언명하였다.

《보안법》과 같이 일체

의 악법에 뿌리를 두고있는 《보안관찰법》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진보적인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개인을 집요하게 감시하고 사생활에까지 개입하게 하는 이 악법이 없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수밖에 없다고 비난하였다.

사상통함을 감시하는 악법이 폐지되는 날까지 함께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이 《보안관찰법》을 즉시 폐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한상렬목사 보안관찰법 불복종 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조선민족의 자부심이 넘칩니다》

## 재로동포대표단의 조국방문기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20주에 즈음하여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재로동포대표단이 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조국방문나날 이들은 만경대와 주체사상탑,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국가선물관, 평양민속공원을 비롯한 평양시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특히 국가선물관과 평양민속공원에 대한 참관은 이들도 두에게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행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모신 총서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우물퐁에 《새쌍둥이》와 《백두산의 새 호랑이 지구돌린다》, 곰돌조각공에 《홍부와 놀부》 등 여러 선물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단장선생은 호랑이가 지구의 미죽땅을 타고갔을 모습 보니 가슴이 후련하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정말 지극하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넓과 의지가 깃들어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전망대에 나간 그들은 평양시내의 전경에 감탄하였다. 멀리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창전거리의 고층건물들이 한눈에 안겨오는 평양의 모습은 한쪽의 그림 같았다.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것을 잘 알수 있다고 하면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여기에서 본 모든것을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러 고구려의 위용을 전하는 광개토태왕비무제주민가, 울릉도와 독도를 돌아보면서, 경주 황룡사 9층탑이며 석가탑과 다보탑, 첨성대며 석굴암과 같은 유적들이 실물과 똑같이 놓여있는것을 보면서 일행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가 집대성되어있는 평양민속공원은 조선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며 재부라고 말하였다.

### 《우리에게는 수령복이 있다》

어버이수령님 서거 20주 중앙추모대회에 참가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꼭 같은 신령에 있는 김정은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었다. 기쁨에 넘쳐 말하는 단장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행은 국가선물관에 도착하였다.

《여기 풍치수려한 풍악산 기슭에 건립된 국가선물관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리려 따르는 우리 겨레의 열화같은 경모심이 집대성되어있는 위인칭송의 대보물고입니다. 선물관에는 절세위인들께 우리 인민과 해외동포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삼가 올린 진귀한 선물들이 시기별, 년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전시되어있습니다. 백두산위인들께서는 온 겨레의 뜨거운 지성이 깃들어있고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선물들을 민족의 재부, 인민의 향유물로 넘겨주시었습니다.》

《백두산의 새 호랑이 지구돌린다》, 곰돌조각공에 《홍부와 놀부》 등 여러 선물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단장선생은 호랑이가 지구의 미죽땅을 타고갔을 모습 보니 가슴이 후련하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정말 지극하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건립된 선물들을 돌아보던 일행은 《자기차그릇일식》과 라진병풍 《십이장생도》를 비롯하여 남조선 전 《대통령》들이 절세위인들께 올린 선물들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다. 기념이 되게 우리 로진과 사진을 찍고싶습니다.》

단장선생의 말에 부인도 한마디 하였다.

《바늘가는데 실 따라간다고 령감따라 여기 민속공원에 와보니 놀랐기 그지없어요. 돌아가면 우리 손주 녀석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겠어요.》

《로진네, 사진찍을 때 (김치-) 하고 소리쳐야 해.》

단장선생의 말에 즐겁게 웃으며 일행은 여러 력사유적들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러 고구려의 위용을 전하는 광개토태왕비무제주민가, 울릉도와 독도를 돌아보면서, 경주 황룡사 9층탑이며 석가탑과 다보탑, 첨성대며 석굴암과 같은 유적들이 실물과 똑같이 놓여있는것을 보면서 일행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가 집대성되어있는 평양민속공원은 조선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며 재부라고 말하였다.

《조국에 여러번 왔었지만 올 때마다 매년 새롭게 느껴 집니다. 이번에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느낀것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부무하도록 건설하고 창조하였다는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돌아가서도 조선민족의 긍지를 안고 살겠습니다. 정말 조선민족의 자부심이 넘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세위인들에 대한 온 겨레의 다함없는 흠모심과 뜨거운 지성이 어린 국가선물관에 찾아오신 동포여러분을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함뿍 담고 인사하는 녀성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대표단일행은 숭엄한 마음으로 국가선물관에 들어섰다.

《단장합니다. 여기에 전시된 선물들만 봐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하늘이 내신분이시라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백두산의 새 호랑이 지구돌린다》, 곰돌조각공에 《홍부와 놀부》 등 여러 선물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단장선생은 호랑이가 지구의 미죽땅을 타고갔을 모습 보니 가슴이 후련하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정말 지극하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건립된 선물들을 돌아보던 일행은 《자기차그릇일식》과 라진병풍 《십이장생도》를 비롯하여 남조선 전 《대통령》들이 절세위인들께 올린 선물들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백두산의 새 호랑이 지구돌린다》, 곰돌조각공에 《홍부와 놀부》 등 여러 선물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단장선생은 호랑이가 지구의 미죽땅을 타고갔을 모습 보니 가슴이 후련하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정말 지극하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건립된 선물들을 돌아보던 일행은 《자기차그릇일식》과 라진병풍 《십이장생도》를 비롯하여 남조선 전 《대통령》들이 절세위인들께 올린 선물들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조국에 여러번 왔었지만 올 때마다 매년 새롭게 느껴 집니다. 이번에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느낀것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부무하도록 건설하고 창조하였다는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돌아가서도 조선민족의 긍지를 안고 살겠습니다. 정말 조선민족의 자부심이 넘칩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전시된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돌아보며

국가선물관에서

평양민속공원에서

## 하늘에선 폭양, 땅우엔 시원한 물보라



한해치고 제일 무더운 요즘 인민의 대중물놀이장인 문수물놀이장이 사람들로 려인 흥성이고있다.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여름철기온이 점점 높아져 낮기온이 섭씨 30°C 이상을 웃도는 지금 사람들속에서 인사처럼 오가는 말이 있다.

《문수물놀이장에 감시다!》

맑은 물 출렁이는 수조, 솟구치는 파도, 시원한 덕수, 특색있는 물미끄럼대들... 생 각만 해도 보아도 땀방울이 견고하고 마음이 절로 상쾌해진다.

소랄도 구부러진다는 삼복의 무더위를 피해 물속에 시원히 몸을 잠그고 자책질도 하고 물미끄럼대에서 지쳐내

《세계에서 보기 드문 물놀이장》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의 글중에서

동하였다.

수영장안팎에는 젊은 남녀들이 함께 어울린 모습들도 보이고 실내 1층에 위치한 각종 수영장시설들주위에는 부모님들을 따라와 주말을 즐기는 아동들, 청소년들, 청 년대학생들, 친구들끼리 찰 지어 우정을 나누는 모습,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섬세한 모습들도 볼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3층에는 차질을 비롯하여 음식점들이 즐비하다. 3~4개의 식당은 해미맛이당분점, 해당화관분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직접하는 봉사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있었다.

문수물놀이장에 대해

《세계에서 보기 드문 물놀이장》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의 글중에서

동하였다.

수영장안팎에는 젊은 남녀들이 함께 어울린 모습들도 보이고 실내 1층에 위치한 각종 수영장시설들주위에는 부모님들을 따라와 주말을 즐기는 아동들, 청소년들, 청 년대학생들, 친구들끼리 찰 지어 우정을 나누는 모습,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섬세한 모습들도 볼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3층에는 차질을 비롯하여 음식점들이 즐비하다. 3~4개의 식당은 해미맛이당분점, 해당화관분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직접하는 봉사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있었다.

문수물놀이장에 대해

## 호평받는 정보기술봉사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서》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 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서》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 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서》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 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다양한 정보기술봉사를 받고들여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서》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 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서》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 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조선의 력기기술을 배우고싶다》

《조선의 력기기술을 배우고싶다》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 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의 력기기술을 배우고싶다》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 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방북기간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하여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 등 새로운 세계 창조물들을 참관하며 또다시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지난 60여년동안 그렇게 미국으로 실배고 고립암살로 고난의 행군을 걸어왔지만 군사강국, 정치사상강국, 첨단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고 이제 사회주의명명국과 경제강국 건설을 앞두고 인민생활향상에 매진하는 북부조국의 모습을 보았다.

기자가 문수물놀이장을 찾은 때는 주말인 토요일이었다. 15만 8 000여㎡의 시설에는 실내의 1층에 수영장들, 미끄럼틀, 파도치는 수영장, 해변기사를 내게 하는 수영장, 사와장, 수영복 입대장 및 각종 물놀이시설들이 즐비하고 여기저기에는 깔깔대며 소리치는 남녀로소들의 웃음소리가 실내를 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물놀이장》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의 글중에서

동하였다.

수영장안팎에는 젊은 남녀들이 함께 어울린 모습들도 보이고 실내 1층에 위치한 각종 수영장시설들주위에는 부모님들을 따라와 주말을 즐기는 아동들, 청소년들, 청 년대학생들, 친구들끼리 찰 지어 우정을 나누는 모습,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섬세한 모습들도 볼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3층에는 차질을 비롯하여 음식점들이 즐비하다. 3~4개의 식당은 해미맛이당분점, 해당화관분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직접하는 봉사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있었다.

문수물놀이장에 대해

《세계에서 보기 드문 물놀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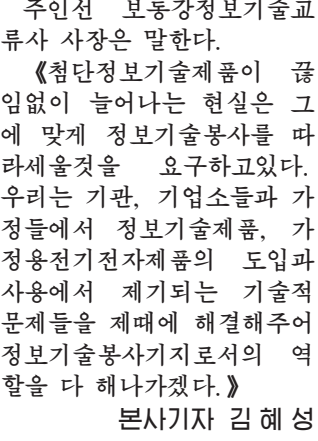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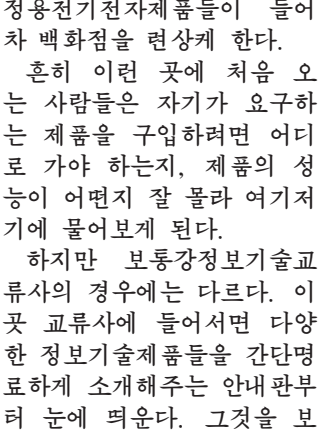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의 글중에서

동하였다.

수영장안팎에는 젊은 남녀들이 함께 어울린 모습들도 보이고 실내 1층에 위치한 각종 수영장시설들주위에는 부모님들을 따라와 주말을 즐기는 아동들, 청소년들, 청 년대학생들, 친구들끼리 찰 지어 우정을 나누는 모습,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섬세한 모습들도 볼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3층에는 차질을 비롯하여 음식점들이 즐비하다. 3~4개의 식당은 해미맛이당분점, 해당화관분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직접하는 봉사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있었다.

문수물놀이장에 대해



《조선의 력기기술을 배우고싶다》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 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의 력기기술을 배우고싶다》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 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의 력기기술을 배우고싶다》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 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의 력기기술을 배우고싶다》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 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의 력기기술을 배우고싶다》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 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의 력기기술을 배우고싶다》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 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의 력기기술을 배우고싶다》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 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의 력기기술을 배우고싶다》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 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자리 잡고있는 칠골교회가 새로 개건되었다.

예로부터 통악산에서 부채살처럼 뻗어내린 일곱번째 팔짜기라고 하여 칠골이라 불리는 곳에 교회가 처음 설립된것은 1899년이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신사참배》강요로 교세가 매우 미약하였던 칠골교회는 해방후야 비로소 공화국정부의 올바른 종교정책에 따라

## 새로 개건된 칠골교회

모든 신자들이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누리는 교회로 발전할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국이 일으킨 조선전쟁으로 인해 북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폭격에 파괴되고 많은 신자들이 희생되었으며 살아남은 신자들은 사방

으로 흩어져 가족례배초소들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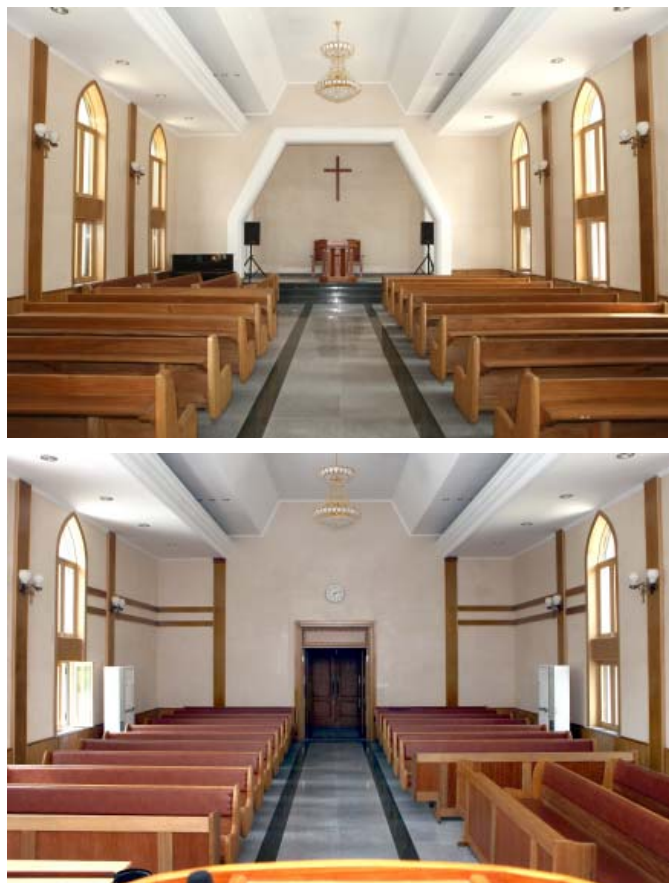
공화국정부의 조치에 따라 칠골교회는 1992년에 종전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서게 되었다.

이번에 칠골교회가 또다시 개건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

게 할수 있는 물질적기초가 마련되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더 잘 보장될수 있게 되었다.

었다. 개건된 칠골교회는 북과 남의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와 협력, 통일의 회합을 이루고 세계평화를 가꾸는 매우 의미깊은 장소로 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세계문자들의 순위 첫자리 - 조선어문자

자질문자란 말소리를 적는 바탕글자이다.

세계 여러 민족들의 말을 하나의 문자로 쓰려면 그 문자가 모든 민족어의 말소리를 표기할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표기하기 쉽고 리해를 빨리 할수 있어야 한다.

1444년 1월에 창제된 훈민정음에 대해 세계언어학계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조선말의 특징은 첫째로, 말소리가 매우 풍부하며 둘째로, 어휘가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제인것이다. 셋째로는 과학성과 편리성이 잘 보장된것이다. 즉 기본글자의 제작원리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점, 기본글자로 점차 획을 더해주는 방법으로 다른 글자들이 정연하게 파생되어 있는 점과 자획이 간단하여 배우기 쉽고 쓰기도 편리한

점 등의 우수성이 있다.

영국의 음성언어학자 제프리 샴슨교수는 조선어가 발음기관을 상형화하여 글자를 만들었다는것도 독특하지만 기본글자에 획을 내는 방법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훌륭하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조선글이 소리글자이지만 새로운 높은 단계의 자질문자로 된다고 평가하였다. 그의 이러한 평가는 조선글이 세계적으로 유일한 자질문자로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이다.

또한 세계언어학계에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영국 옥스퍼드종합대학 언어학대학에서는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 모든 문자들의 순위를 정하였는데 조선어문자가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에서는 세종왕시기에 처음으로 만든 훈민정음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유네스코에서는 말은 있지만 글이 없어 고생하는 소수민족들에게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말을 조선글자로 표기하도록 가르치고있다. 조선어는 과학적인 언어로서 쓰기가 편리하기때문에 지구상 거의 모든 민족어들을 표기할수 있는 글이다.

20세기말 프랑스에서 진행된 세계언어학자들의 학술대회에서는 에스페란토어가 너무 협소하기때문에 조선어를 세계공용어로 쓰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기되었다.

현재 유네스코는 세종대왕상을 제정하고 문맹퇴치와 언어학분야에서 업적을 쌓은 사람들에게 수여한다.

본사기자

평양성은 고구려시기인 552-586년에 건설하였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유리한 지대에 평지성의 우점과 산성의 우점을 종합하여 평양성형식으로 쌓은 평양성은 둘레는 약 16km, 성벽의 총 연장길이는 약 23km였으며 고구려가 한창 번창하던 시기 수도의 주민호수는 21만 508호에 달하였다. 이 수자는 호당 인구를 5명으로 보아도 평양의

인구가 100만이 훨씬 넘는 때도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중세기초에 이만한 대도시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었다.

전금문, 현무문이다.

지금까지 평양성에서는 성벽쌓기를 담당한 지방과 구간, 감독자의 지위와 이름 등이 밝혀진 글자를 새긴 고구려성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평양성은 우리 민족의 오랜 력사의 증견자로서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 투쟁력사를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본사기자

## 삼복철의 유래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무더운 여름철기에 삼복을 정하고 이 기간에는 로동과 휴식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음식들도 독특하게 만들어 먹었다.

삼복은 여름철의 가장 더운 때인 초복, 중복, 말복을 이르고도 하며 이때의 더위를 삼복더위라고 한다. 삼복의 《복》은 엮드릴 《복》자로서 한여름의 더위를 피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복날과 관련된 기록들이 전해오고있다. 삼복은 10간 12지의 10간에 있는 경

## 삼복절과 민족음식

으로 세는데 하지날부터 세번째경이 오는 날을 초복, 네번째경이 오는 날을 중복, 립추날부터 첫경이 오는 날을 말복이라고 하였다.

초복이 제일 빠른 날자는 7월 12일이며 제일 늦은 날자는 7월 22일이었다.

중복과 말복사이가 20일간격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계산법으로 올해 초복은 7월 18일, 중복은 28일, 말복은 8월 7일이다.

삼복은 한해치고도 가장 더운 때로 알려져있었으므로 예로부터 사람들의 생활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있었다. 삼복철이 되면 조밥이나

흰쌀밥을 더운 단고기국에 말아먹으면서 땀을 내는것을 으뜸가는 몸보신으로 여기었다. 또한 삼복철의 음식으로는 삼계탕, 소고기매운탕, 햇보리밥과 과국 등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초복에만 단고기국을 먹고 중복과 말복에는 다른 음식을 먹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오랜 민속 전통을 놓고보아도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단고기의 약효와 가공 방법

우리 나라에서는 단고기 로 만든 식품이 구장, 단고기국, 사철탕, 영양탕, 보신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민족음식의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고기를 대접하여 기력을 회복시켰다고 한다.

《동의보감》에는 단고기가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장과 위를 두텁게 하고 기력을 더해준다고 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년중 행사 및 풍속을 기록한 《동국사시기》에는 단고기국에 밥을 말아서 땀흘려 먹으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약한것을 보강할수 있어 삼복중의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하였다.

단고기 100g에는 단백질 18.5g, 지방 4.1g, 칼슘 10mg이 들어있으며 닭, 돼지, 소, 오리고기에 비하여 비타민 A, B가 훨씬 많다.

또한 단고기는 다른 짐승고기에 비해 지방은 많지 않지만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되는 포화지방산을 억제하는 불포화지방산을 다량포함하고있다.

단고기가 소와 흡수가 잘 되고 좀처럼 체하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있다.

누렁개의 고기는 뼈를 강하게 하고 혈기를 왕성하게 하며 녀성들의 피를 보충하고 불임증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 생기는 탈수현상과 빈혈증에 좋다.

검은개의 고기도 사람의 체질을 강하게 하기때문에 남성들에게 더욱 유익하며 녀성들의 난산을 치료하는 데도 좋다. 단고기를 가공할 때 향나무로 만든 도마와 참대로 만든 도구를 쓰며 될수록 생물을 넣고 끓이되 화학조미료를 넣지 않는 것이 좋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에서 물물교환 또는 화폐에 의한 교환과 매매의 역사는 오래지만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농민시장이 처음으로 등장한것은 5세기말이다.

그 당시 전라도의 무안, 라주 등지에는 큰 흥년이 들어 사람들이 스스로 한달에 두번정도 읍에 모여 필

요한 물건들을 교환하였는데 이것을 《장문》이라고 하였다.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농민들과 수공업자들로서 생계유지가 목적이였다.

시장은 몇개 마을사람들이 하루에 갖다올수 있는 교역의 중심지에 설치되었다.

초기의 농민시장은 15일 또는 10일간격으로 열렸으나 점차 5일간격으로 열리게 되었다.

17~18세기경부터 농민시장은 더욱 번창하여 산간벽지에도 농민시장이 생겼으며 18세기중반이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농민시장이 1천여곳이나 되었다.

본사기자

## 속담 겸손성 (1)

《곡식은 이삭이 여물수록 고개를 숙인다.》

아는것이 많고 수양이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하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깊이 흐르는 물이 소리가 나지 않듯이 교양이 있고 수양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한다는것을 일깨워주는 말.

《으르렁대는 소는 밭지 않는다.》

공언히 큰소리를 치는 사람이 실상은 역량이나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겸손하고 무게있게 행동할것을 이르는 말.

《버짐에도 속이 있다.》

변변치 않은 버짐에도 속대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대가 없겠느냐는 뜻으로 사람을 누구나 알아잡아보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 사화 명화 《레성강도》 (3)

글 전철호, 그림 김윤일

리녕의 곁에 섰던 광필이 《아빠, 이젠 아미미가 송나라 배에 올라 갔잖나이다.》 하고 말하며 손시늬를 한다것이 아직도 파란색감의 얼굴을 후렸다.

《이크...》

《호호호-》

그 바람에 방안에 웃음소리가 울려왔다.

《광필이 아버지, 이걸 보시나이다.》

송이는 허리춤에서 얼른 풍경무늬청동거울을 꺼내 리녕의 얼굴을 비추었다.

《송이, 이걸새가 없소. 어서 거기로 가보아야겠소.》

《아빠, 덤비지 마소이다.》

그 바람에 또 《핫하-》 《호호-》 하는 큰 웃음들이 터졌다.

여섯살치고 광필은 주위를

보는 눈이 이렇게 앞섰다. 돌이 되기 전에 어미를 잃은것 동냥짓으로 기른 보람이 있었다. 저 불쌍한것이 눈만 뜨면 그림을 그릴때에 분주히 돌아치는 화공들의 세상에서 붓을 쥐는 재간보다 사람과 사물을 속속히 헤아리는 재주부터 먼저 익혀왔다.

《세편을 하소이다.》

송이는 어느새 늦대야에 정갈한 물을 떠왔다.

리녕은 그제야 송이가 이 객관에 잠간 들려갈 잡도리가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는 뜨거웠을 삼켰다. 노래나 파는 천한 가기라고 남들은 천시하지만 리녕에게 송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순결한 녀인으로 둔 보았다.

리녕은 자신의 가슴속에 송이에 대한 애묘본정이 짙들어차있음을 강렬하게 느끼

었다.

(아직은 내 마음을 더 깊이 물어두어야 해. 나의 《레성강도》를 훌륭한 명화로 만드는데 모든걸 바치자.)

그날 송이는 매일 낮에 좌벽란정의 뒤에 있는 미라산에 오르자고 약속하였다. ...

2

리녕은 눈을 비비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나리꽃마냥 연약해보여서 이 손에 끌려갈줄 알았던 송이가 속속을 휘둘러 나는 피꼬리마냥 아스라한 미라산을 앞장에서 이끈다. 리녕은 송이가 내민 부드러운 손을 잡고 길남는 절벽들을 몇개나 기어오르지 모른다.

지금 앞장에서 바위우에서 사뿐 기어오른 송이를 보며 할색시마에 또 하늘색머리의 차림새에서 그대로 절벽우에 뿌리를 박은 청정한

소나무의 모습같았다.

《송이! 꼭 이 산정에 올라야만 그림을 그릴수 있소?》

리녕은 숨이 차고 다리맥이 쑥 빠지여서보다는 한다하는 남정이 랑자한데 짐이 된것이 속스러워 열결에 내뱉은것이였다.

《광필이 아버지, 좀만 더 힘을 내시오이다.》

송이는 울랐던 바위우에서 잠자리처럼 살짝 뛰어내려 리녕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리면에 섰던 수건을 벗어서 팔쪽같은 땀방울들이 번지르르한 리녕의 얼굴이며 목을 살짝살짝 문대었다.

리녕은 격정이 북받쳤지만 꼭 누르고 《됐소, 됐소.》 하고 군말을 했다.

《화구함을 인주소이다.》

송이는 날래게 리녕의 어깨에서 화구함을 벗겨내며 제가 떨어졌다.

리녕은 불쑥불쑥 치미는 련정을 참을수 없어 지그시 혀를 깨물었다.

어느새 바위우로 기어오른 송이는 제 손을 내밀고 소리쳤다.

《광필이 아버지! 어서 잡으시오.》

리녕은 침을 꿀꺽 삼키고 또 하나의 바위를 툴아올랐다.

드디어 산정에 오른 리녕은 야! 하고 목청껏 탄성을 터치며 발을 구르고싶었다. 수천척바위산의 머리우에 두다리를 딛고보니 만척구름우에 등실 떠서 천하를 굽어보는 심정이였다.

(내 나라의 금수강산아-) 부풀은 감정은 그의 가슴

속에서 한 시인이 지은 시를 되새기게 했다.

협산에 가을바람 불어드니 만골짜기 호응하여 울부짖고

목은 구름 가시니 하늘은 높이 아득하구나

이런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일것이다.

리녕은 숨을 한껏 쉬고 강산을 둘러보았다.

저 멀리 남쪽의 강화섬은

지척인듯 보이는데 흰구름들이 감겨있는 전등산이며 혈구산들은 손끝에서 갈선했다. 정주고을의 바다가에서 유명한 백마산의 어깨친구인듯 등을 기대고싶어진다. 눈 세상이 어서 오라 반기는듯 무수한 산발들은 두팔을 벌리고 출렁이는 레성강을 향해 줄을 지었다. 레성강에서 관주 뻗어나간 촉백천은 토성별을 굽어치며 황도(개경)를 품에 안은 송악산으로 달려간다. 발밑에선 물우의 큰 도회지가 물장구를 친다.

자그마한 종이 한장에 천만의 명문장을 대신할 명화가 되도록 이 모든것을 다 담아야 한다. 강을 담으면 산이 기울것 같고 산을 살리면 강이 작아질수 있었다.

《광필이 아버지! 이 산 밑의 좌벽란정을 굽어보시오.》

송이는 아차 한발만 헛디디면 천길날벼랑으로 굴러떨어질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바위우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래를 겨누었다.

리녕은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움켜져 송이의 곁에 가섰다. 그는 오금이 저리는 걸 참고 송이의 손끝을 굽어 보았다. 합각지붕을 떠민고 쾌동같은 기와집이 그 녀자의 손끝에 있었다. 바로 저 경강에서 외국의 사절들을 맞이한다.

《다음은 저 건너 벽란도에 우뚝한 우벽란정을 보시오이다.》

송이의 손끝에 겨누어진 저 웅장한 우벽란정에서는 화천을 다지는 다른 나라 황제의 국서를 받아들인다.

《이번에는 우리 벽란도로부터 황도까지 눈여겨보시오이다.》

리녕은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저 홀로 볼때에는 이런 볼랐는데 송이가 말한대로 눈정기를 모으고 한곳 한곳 바라보니 새로운 멋이 있었다.

벽란도로부터 황도까지의 40리거리에 높고낮은 기와집들이 차마를 잇던 모습은 하나의 거대한 외랑을 방불케 하였다. 이해서 비가 와도 행인들은 차마밑으로 웃으며 오간다.

본사기자

